

즐기면서 이기는 매직 골프

드라이빙 서두르면 드라이버 샷 삐끗 ... 녹장 도착 금물

〈운전〉



골프에서 티타임에 늦으면 벌타 혹은 실격이다. 청야니는 지각 후 7년 간의 슬럼프에 빠졌다.



로리 매길로이(왼쪽)는 지각 위기를 면하게 도와준 대회 관계자와 결혼했다. <중앙포토>



타이거 우즈는 오른쪽 다리와 발에 중상을 입었다.

골퍼들 지각 탓 망친 경기 많다
 더스틴 존슨, 티타임 못 맞춰 실격
 이민영, 아이언만 들고가 10 오버파
 늦잠 청야니는 출전 좌절에 '멘붕'
 세계 2위서 1000위 추락 도화선
 우즈, 촬영약속 늦어 과속하다 참사

흔치는 않지만, 프로 골퍼 선수들도 티타임에 지각하는 경우가 있다. 2012년 미국 시카고 메디나나 골프장에서 벌어진 라이더컵 최종일 싱글 매치 경기에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시간을 착각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카고는 중서부 시간대를 쓴다. 한 시간이 늦었다. 게다가 유럽과 미국이 자존심을 건 골프 국가대표전인 라이더컵 기간 대회장 인근은 거의 주차장 수준으로 통행량이 늘어난다.

매길로이는 경찰차에 타고 골프장 안까지 들어와 신발 끈도 매지 못한 채 티잉그라운드에서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매길로이는 다행히 경기에서 이겼고, 유럽팀은 대역전승을 일궜다. 매길로이는 좋은 인연도 맺었다. 자신을 시간에 맞게 도착하게 도와준 대회 관계자와 결혼했다. 지난해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골프장에 허겁지겁 도착해서 생긴 해피엔딩은 이게 전부인가 아닌가 싶다. 2018년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시네크힐스 골프장에서 벌어진 US 오픈은 긴 섬(롱아일랜드) 끝에 있고, 도로가 거의 외길이어서 공식 호텔에서 3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 일부 선수들은 차에서 내려 클럽을 들고 뛰기도 했다. 성적이 좋을 리 없었다. 당시 타이거 우즈는 차량 정체를 우려, 골프장 인근 항구에 자신의 호화 요트를 대고 숙박했다.

2011년 리비에라 골프장에서 벌어진 PGA 투어 닷산 LA오픈(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는 더스틴 존슨(미국)이 티타임을 맞추지 못해 실격됐다. 존슨은 골프장에 와 있었지만 캐디가 시간을

잘못 알려줬다. 현재 일본 투어에서 뛰는 이민영은 2013년 LPGA 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에 지각했다. 상황이 있었다. 이미린이 대회 당일 아침 손목이 아파 불참을 통보했다. 대기 1번 김혜윤은 대전에 있어 시간 내에 올 수 없었다. 다음 순번 최혜정, 그다음 선수 김다나도 그랬다. 이민영이 오전 8시 30분 전화를 받았다. 티타임은 9시 20분이었다. 이민영은 대기순번 4번이라 대회에 나갈 기대를 하지 않았다. 클럽을 피팅센터에 맡겨놓은 터였다.

이민영은 예전에 쓰던 아이언만 차에 싣고 대회장까지 총알처럼 날아갔다. 골프장에 도착한 시간은 9시 20분. 클럽하우스 앞에 아무렇게나 차를 대놓고 냅다 티잉 그라운드로 뛰었다. 지각 시간은 3분, 실격 기준인 5분을 넘지 않아 경기는 할 수 있었다. 이민영은 드라이버와 우드는 물론, 웨지·야지·디지북·장갑·캐디도 없이 핀 위치도 모른 채 경기를 시작했다. 첫 홀 보기를 했는데 지각에 대한 벌타 2타가 얹혀 트리플 보기로 기록됐다.

2번 홀을 마칠 때쯤 KPGA 직원이 갤러리 장터에서 사 온 재고 드라이버와 우드, 웨지를 받았다. 직원은 여성용 클럽을 사 왔는데, 이민영에겐 샤프트가 너무 부드러웠다. 샷이 잘 될 리가 없었다. 캐디백은 진행요원에게 사정해서 떼게 했다. 첫 날 10오버파였다. 2라운드에서 이민영은 이븐파, 3라운드에서는 3타를 줄였다. 첫날 10오버파를 제외하고 2, 3라운드만 치면 3언더파로 10위권이었으니 아쉬운 1라운드였다.

골프에서 지각으로 인해 생긴 두 번째로 큰 참사 주인공은 청야니(대만)라고 본다. 2013년 LPGA 투어 기아 클래식 프로암에 지각해 '프로암 불참' 선수는 대회 참가 금지' 규정에 따라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그는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 늦잠을 잤다"고 했다. 트위터에 '너무 슬프다. 당장 나가서 알람시계를 몇 개 사 오겠다'고 썼다. 청야니는 기아클래식 전년도 챔피언이라 더 화제가 됐다.

당시 세계랭킹 2위였던 청야니는 이후 이른바 멘탈 붕괴를 겪은 것 같다. 가파른 내리막을 탔고 회복하지 못했다. 현재 세계랭킹이 1000등 정도다. "안니카 소렌스탐보다 더 많이 우승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던 청야니의 몰락이 지각 사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도화선이 됐을 수는 있다.

그리고 8년이 흘러 골프장 지각으로 인한 최악의 사고가 나왔다. 아마 골프에서 터진 가장 큰 불행 중 하나일 것이다. 타이거 우즈(미국)가 지난 24일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선수 생명이 위협하다. 경찰은 과속했다고 발표했다. 졸음운전 가능성도 크다. 우즈는 이날 골프장 촬영 약속 시간에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골프장 근처에서도 특히 새벽에 난폭 운전 차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티타임에 늦어서 그런 듯 한데 다른 차들까지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 무섭다. 타이거 우즈 사고를 계기로 좀 더 일찍 출발하고 여유 있게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드라이빙(운전)을 서두르면 드라이버 샷도 급하다. 허겁지겁 도착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비슷하다. 라운드 내내 허둥지둥, 갈팡질팡하게 된다.

PGA 투어 선수들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대략 2시간 전에 골프장에 도착한다. 헬스클럽에서 한 시간, 쇼트게임 중심으로 샷 연습을 하는데 한 시간 정도를 쓴다. 아마추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몸이 딱딱하니 일찍 도착해 스트레칭이라도 꼼꼼히 해야 한다. 라운드가 끝날 때쯤 몸이 풀린다면 시간 매니지먼트에 실패했다는 거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제네시스 자동차.

/연합뉴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시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